

전기계 소식 / 국내

### 금년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대책

### 수요관리 강화로 공급예비율 7% 이상 확보

통상산업부는 금년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동발표에 의하면 '96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는 작년 여름철 최대수요 2987만8천kW보다 12.6% 증가한 3365만2천kW로 전망되며, 공급능력은 서인천 복합화력 등 9개 발전소의 6월말까지 준공으로 '95대비 8.9% 증가한 3482만3천kW이며, 수급안정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한 화력발전소 상향운전 등으로 당초보다 30만2천kW 증가된 3512만5천kW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하고, 부하관리요금제도의 확대시행 등 수요관리 강화로 최대수요를 100만9천kW 절감하여 공급예비율을 작년(7.0%)보다 높은 7.6% 수준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6월 8일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10개 전력수급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전력수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박재운 장관은 동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10여일 동안 지속된 무더위 최대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수급동향과 대책 등을 재점검하고, 금년 여름철 장기 기상전망,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과 에어컨 보급추세 등 수요변동 요인을 감안한 금년 여름철 수요를 재예측하고, 전력수급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전력유관기관별 기능과 역할 등을 재점검하고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에 그동안 준비해온 발전소 계획예방 정비 등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대책, 수요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 점검하였다.

특히 지난 5월 하순부터 평년기온보다 3~5℃의 높은 기온발생으로 냉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능력은 최대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7.8월에 대비한 예방정비 등으로 공급예비율이 5~7%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7.8월뿐 아니라 6월과 9월에도 7%수준 이상의 공급예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점검하였다.

#### ■ 최근의 전력수급동향

○'96.1~4월까지 총소비는 584억kWh로서, 전년동기 대비 12.9% 증가하였으며, 4월은 지난해 동월대비 10.6% 증가  
○금년 5월말 현재 최대수요는 2759만3천kW로서,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하였으며, 공급능력은 2909만2천kW로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하여 공급예비율은 5.4% 수준을 유지

※최대수요 발생일('96.1.26 19:00)의 설비용량은 3318만4천kW였으나, 여름철을 대비하여 409만2천kW의 발전소 예방정비 등을 실시함으로써 낮은 예비율 기록

#### ■ 금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과 에어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금년 여름철 최대수요를 작년 여름철 최대수요 2987만8천kW보다 12.6% 증가한 3365만2천kW로 전망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 장기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금년 여름철의 기온과 강수량은 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률은 최근의 실물경제동향을 감안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전망한 '96연간 GDP성장률 7.5%를 적용

-아울러, '96년 여름철 냉방수요는 최근의 에어컨 보급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작년 여름철보다 115만6천kW 증가한 694만2천kW 내외 수준으로 전망  
○공급능력은 서인천복합화력 등 9개 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6월말까지 준공완료하여, 작년 공급능력 3196만8천kW보다 8.9% 증가한 3482만3천kW를 확보

-'96년 6월말까지 준공 주요발전소:서인천복합화력 3,4단계(120만kW), 울산제2복합화력(60만kW), 한화화력 2,3단계(60만kW), 일산복합화력 증설(10만kW), 제주한림복합화력(3만5천kW) 등

#### ■ 전력수급 대책

○금년에 추가되는 공급능력이 늘어나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성능이 우수한 화력발전소의 상향운전 등으로 당초보다 10만2천kW 증가된 3952만5천k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자율절전 요금제도 확대시행 등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100만9천kW의 최

대수요를 절감함으로써, 공급예비율을 7.0% 수준으로 확보하여 전력수급에 안정을 기할 계획

-공급능력 확보 대책으로 태안 #1~2 호기 등 성능이 우수한 화력발전소 2기를 일시 상향운전(4만2천kW)하고, 민간 열병합발전소로부터 60만kW의 전력을 추가로 구입하여 10만2천kW를 확보

-수요관리 대책으로 전기다소비 업체 등에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2~4시에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최대수요 발생기간(7월말~8월중순)에 휴가 또는 설비보수로 일정량의 최대수요를 절감할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등 부하관리 요금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전기대체 냉방기기 보급에도 주력하는 등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하여 100만9천kW의 최대수요를

절감할 계획

※ 수요관리제도 확대실시 내용

-자율절전제도(45만6천kW 절감)

· 실시대상:계약전력 5천kW 이상 산업용, 일반용 → 1천kW 이상 산업용, 일반용

· 요금경감폭:85원/kW → 100원/kW

-하계휴가·보수조정제도(21만4천kW 절감)

· 요금경감폭:440원/kW → 530원/kW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13만kW 절감)

· 실시대상:계약전력 5천kW 이상 산업용·일반용 → 1천~5천kW 미만 산업용 추가

-가스냉방 등 전기대체 냉방기기 보급 등(20만9천kW 절감)

■ 고장방지대책과 전력수급대책본부 운영 등

○아울러, 발전소의 불시정지 등 고장발

생으로 공급능력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안전점검 대책반을 운영하여 제반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송·변·배전설비 보강 등을 통하여 광역정전 예방에도 주력

○이와 함께, 여름철 최대부하 이전을 위하여 전기다소비 업체에 대한 수요관리 기법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홍보내용을 수요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절전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부처별로 전기 소비절약과 홍보 협조사항을 정하고 모든 부처 및 공공기관이 이를 적극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소비절약 분위기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

○또한 통상산업부 장관을 본부장으로서 하는 전력수급대책본부를 6월초부터 8월말까지 본격 가동하여 수요관리, 고장방지, 홍보대책 등을 강구하고 수급동향도 매일 점검해 나갈 계획임.

## LNG 民資發電所 2基, 8개 企業 참여

### 韓電, 입찰신청서 접수

한전이 지난 5월30일 민자발전소 입찰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50만kW급 유연탄 화력 1개사업에는 포철의 ▲포스에너지(주)가 예상대로 단독입찰했으며, LNG복합화력에는 LG에너지(주), 동한에너지(주), 현대에너지(주), 대림에너지(주), (주)대우, (주)유공, 울도전력(주) 동부에너지(주) 등 8개 기업이 참여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검토사업 구성을 보면 동한에너지는 동아건설과 한국중공업, 대림에너지는 대림산업·일본 미쓰이물산·

모빌사, 울도전력은 한진건설·한진중공업·효성중공업, 현대에너지는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현대중공업·현대중합상사·현대상선, LG에너지는LG건설·LG엔지니어링·LG반도체·LG상사·LG전선, 동부에너지는 동부건설·금호건설·(주)태영·삼부토건, 포스에너지는 포철·포스코개발의 출자사이다. 유공과 대우는 현 법인으로 입찰했다.

당초 LNG복합화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삼환기업·한화에너지 등 2개 기업은 입찰에 불참했다.

석탄화력의 경우 포스에너지(주)가 단독 입찰, 한전의 발전소건설·운영의 회피비용 이내에서 한전·포철간 수익계약이 추진된다. 나머지 8개 기업은 LNG 2개 사업을 놓고, 필수요건과 비가격경쟁(4백점), 가격경쟁(6백점) 등 1천점 만점에서 상위 득점 2개사가 민자사업 예정자로 결정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최종 사업자는 오는 8월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고 9월께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01~2004년께 발전소를 준공, 운영하게 된다.

전기계 소식 / 국내

한편 LNG복합화력의 경우 총건설비 는 기당 2500억원, 유연탄화력은 5천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原電기술 2010년 세계 3위

#### 과기처 「원자력 진흥계획」 공청회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핵연료주기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개발능력을 오는 2010년까지 세계 3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 연구개발에 내년 부터 오는 2006년까지 10년 동안 3 조 78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기술개발 투자액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학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안)」을 마련, 지난 5월 27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처는 이번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안)에서 현재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개발능력을 오는 2010년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의 경우 국민총생산(GNP)대비 0.031%인 원자력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을 매년 21% 정도씩 늘려 오는 2010년에는 0.1%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국제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토륨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과기처는 또한 경수로와 중수로의 동시보유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경수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중수로에 재활용하는 「경·중수로연계 핵연료주기(DUPIC)」 기술개발과 차세대 원자로에 이은 액체금속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기처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협의와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을 내달말까지 마무리짓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전기자동차 연내 실용화

#### 자동차 제직업체 실용화방안 협의

무공해차량인 전기자동차가 올해안에 실용화된다.

지난 5월 13일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환경부와 현대, 기아, 대우자동차 등 자동차 제직업체들은 최근 전기자동차 실용화방안에 관한 협의를 갖고 각 업체들이 개발한 전기자동차를 올해 안에 실용화하기로 했다. 실용화의 형태는 우선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구입해 사내용으로 운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단계적으로 판매대상과

운행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대우자동차가 지난 5월 8일 전기자동차의 형식승인을 통산부에 신청했으며 현대와 기아자동차도 곧 판매를 전제로 한 형식승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과 보험, 전기요금 체계 등 관련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또 한국전력

은 운행지역이 확정되는 대로 자동차용 전기 충전소를 해당지역에 설치할 예정인데 남아도는 심야전력을 전기자동차의 충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전혀없어 자동차 공해 대책으로 각국이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내년부터 일정비율의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토록 제도화했다.

**OCED,  
發電事業自由化**

**각료이사회에서  
規制制度 改革에 포함**

지난 5월 22일 저녁 파리에서 폐막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선진국의 규제제도개혁에 관한 작업계획을 책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6개 분야의 하나로 발전사업의 보다 자유화가 포함되어 있다. 발전사업에 경쟁원리의 도입이나 소비자에의 영향, 규제완화에 의한 경제효과에 대하여 그 프로세스와 결과를 검토하여 선진국으로서의 적절한 레벨의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하게 된다. 금후 1년간에 걸쳐 가맹각국에 앙케이트 등을 실시하여 '97년의 각료이사회에 보고·권고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 「작업계획」은 금후, 리용 정상 회담이나 4개국 통상장관 회합 등에서도 검토상황이 보고될 전망이다. 또 작업가이드라인 중에 환경에 관한 세제개혁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내년의 각료이사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OECD가맹국의 「규제제도개혁·작업계획」은 작년의 각료이사회에서 일본 측이 제안하여 이번의 각료이사회에서 지지를 받았다. 작업계획은 발전부문, 전기통신, 직업서비스, 금융서비스, 농

산물, 제품기준의 6개 분야의 분야별 검토와 「규제완화의 경제효과」, 「경쟁과 소비자,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개혁」 등 5개분야의 테마별보고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점분야의 하나인 발전부문에 대하여는 경쟁원리의 도입과 규제완화에 의한 소비자에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테마별보고에서도 전기분야의 규제완화의 실정을 조사하는 외에 공공부문의 규제개혁에 대하여 검토할 방침이다.

가맹국에게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내년의 권고에서는 적정레벨의 규제에 대한 사고방식을 제시함과 동시에 규제완화의 추진을 제안한다.

**日, 太陽光發電**

**電力각사의  
잉여전력구입 급증**

일본의 주택 등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스템에서 전력각사가 구입하고 있는 잉여전력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전기사업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말의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잉여전력구입실적은 1994년도말에 비하여 건수, 발전전력베이스로 각각 약 3배로 늘어났다.

新에너지의 도입촉진을 겨냥하여 전력각사가 사용전력량요금과 같은 판매 단가로 태양광발전에서의 잉여전력을

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통산성·자원에너지청의 보조사업이나 발전시스템 자체의 가격인하 등에 의하여 설치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태양광발전은 종래, 공공시설이나 법인 등의 설치에 한정되고 있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최근에는 일반의 관심도 높다. 전체 발전설비로 보면 아직 소규모라고는 하나, 잉여전력구입실적에서도 그 착실한 침투를 엿볼 수 있다.

沖繩電力을 포함한 전력10사가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는 잉여전력의 구입실적은 건수베이스로 1994년도말의 435건에 비하여 1995년도는 1,437건으로 약 3.3배로 증가하였다. 발전설비 출력베이스로도 1994년도 2,227kW에서 6,113kW로 크게 신장하고 있다.

회사별로는 1994년도 1994년도의 구입건수가 136건이었던 東京電力이 1995년도는 452건이 된 것을 비롯하여, 中部電力이 89건에서 283건, 關西電力이 83건에서 24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九州, 東北, 中國도 1995년도말의 구입건수가 100건을 돌파하였다.

전력각사는 신에너지의 보급을 목적으로 1992년 4월에 신에너지로부터의 잉여 전력구입제도를 실시하였다. 태양광발전에서의 잉여전력은 계약종별 판매단가(전력량요금)로 구입하고 있어 구입조건으로는 태양광발전의 유저에게

**전기계 소식 / 국외**

유리하다.

다만 제도발족시기인 1992년도의 구입실적은 전국에서 13건에 불과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골프장이라든가 연구소, 공원 등 공공기관, 법인 등이었고 개인 주택은 3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정부가 1994년 12월에 각의로 결정한 「신에너지도입대강」에서는 석유대체에너지의 도입촉진을 들고 있으며 특히 클린하며 무진장의 에너지로서의 태양광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993년도에는 0.36만kW에 불과했던 태양광발전규모를 2000년도에는 40만kW, 2010년도에는 460만kW로 확대할 것을 내놓고 있다.

대강에서는 보급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적극적인 도입과 계몽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청이 1994년도부터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모니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개인주택에도 설치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모니터를 설치하면 월별 발전량 등에 대하여 3년간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1kW당 85만엔 한도내에서 설치비용은 반액이 보조되기 때문에 사업대상건수도 초년도에는 2배의 경쟁률로 552건, 작년도는 5배 이상 늘어 1,023건이 적용을 받는 등 인기가 높다. 금년도도 3kW 정도의 시스템으로 약 1600건을 대상으로 보조할 계획이다.

또 급속한 보급의 영향으로 태양광발

전시스템의 메이커도 생산량이 신장되어 제품의 저코스트화를 기하고 있으며, 1994년경에는 발전출력 3kW 정도의 설비로 600만엔 이상하던 시스템도 최근에는 400만엔 전후까지 가격이 인하되었다. 이와 같은 저가격도 주택에의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電氣事業連合會가 조사한 태양광발전에서의 잉여전력구입실적을 기초로 시산하면 1건당 발전출력 규모는 1994년도의 약 5.1kW에서 1995년도는 약 4.3kW로 작아졌다.

비교적 출력규모가 큰 사업용이 많았던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3~4kW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주택용태양광발전시스템은 지붕 등에 설치한 태양전지를 사용하여 발전하고 인버터로 교류로 변환하여 가정내 전기를 흘리는 장치이다. 보통 1개월당 사용전력량이 280kWh인 표준가정이 3kW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지붕에 설치할 경우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10%로 하면 연간 사용전력량의 8할 정도를 태양광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中國 瀋陽市  
臺灣企業 投資 러시**

중국 최대의 중공업기지인 瀋陽市에 대만기업의 투자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동시의 瀋陽高新技術產業開發區는 35社の 대만기업이 合併, 獨資企業 설립등을 했으며, 이 가운데 24社가 이미 조업을 개시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도 瀋陽에의 투자를 위한 대만기업이 쇄도하고 있으며, 동 시당국과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瀋陽市에는 21세기에 걸쳐 대만기업의 一大生産基地가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瀋陽高新技術產業開發區內의 海峽兩岸科技園區에는 東北大學軟件園(소프트웨어파크), 東江集團의 집적회로기지와 대만자본의 廣通公司, 和光國際소프트웨어센터 등의 5大프로젝트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臺灣味全食品公司, 臺灣飛揚企業有限公司, 臺灣秦皇集團, 臺灣奇進有限公司 등의 합병 및 獨資企業프로젝트를 둘러싼 상담, 절충이 최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瀋陽海峽兩岸科技工業園區에는 孵化區(인큐베이터區), 産業區, 服務區의 3區의 機能區로 구성, 중점 발전영역으로서 컴퓨터, 同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지능화기계설비, 바이오엔지니어링·의약, 전자기술, 신재료 등의 분야로 총 투자액은 50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또 전체구상으로는 研究學園都市, 인더스트리얼파크를 지향하고 있으며 “學院化, 社會區域化, 公園化, 國際化”의 토털디자인을 목표로 2005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성후의 瀋陽海峽

전기계 소식 / 국외

兩岸科技園區의 연간판매수입은 200억 원, 稅前利益은 60억 원의 생산기지가 된다.

日, 自主 安全管理 體制強化

科技廳, 몬주 第2次 中間報告

일본의 과학기술청은 지난 5월 23일 動燃(動力爐·핵연료개발 사업단)의 고속증식로(FBR)原型爐 「몬주(福井縣 敦賀市, 28만kW)에서 작년 12월에 발생한 나트륨 누설사고에 관한 제2차 중간보고서를 공표하였다. 누설개소인 2차 주냉각계배관의 온도계가 파손된 것은 나트륨 流力으로 보호(靚)細管部가 진동하여 高사이클 피로가 생긴 것이 원인으로 메이커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였다. 정보공개자세에 대하여 엄한 비판을 받은 動燃의 사고후의 대외적 대응에 대하여는 사고시체제의 허술함에 의한 혼란이 배경이었다고 하면서 動燃의 組織體質, 과기청의 감독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도계를 안전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이외에 사고에 대비한 체제정비, 자주안전관리체제의 강화를 위해 動燃에 대한 지도를 하는 외에 敦賀市내의 운전관리전문사무소를 改組하여 현지대응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취

할 것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같은 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또 中川秀直 과기청 장관이 大石博 動燃理事長에 수교하였으며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기초로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원인규명의 초점이었던 溫度計에 대하여 보고서는 細管部の 보호관根元에 나트륨의 흐름에 의한 응력이 집중하는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이 파괴원인이라며 메이커의 설계미스를 지적, 이것을 간과한 動燃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2차계의 동일한 설계의 온도계 중 왜 1개만이 파손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조사과제로 남겼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그밖에 나트륨누설에 의한 주변기기의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사고현장의 鋼製床라이너의 기능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으며 나트륨이 콘크리트와 직접 접촉하여 수소를 발생할 우려는 없었다고 한다. 나트륨화합물이 부착된 제어반 등의 기기에 대하여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한다.

한편 앞으로의 대응으로서는 몬주의 2차계 온도계 모두를 과기청이 건전성을 심사한 새로운 것으로 교환토록 하였다. 또 메이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자주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도록 動燃에 요구한 외에 과기청내에 「몬주 안전총점검팀(가칭)」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敦賀市에 두고 있는 운전관

리전문관사무소를 「몬주·후경안전관리 사무소(가칭)」로 개조하고 인원을 증강, 몬주건설소 및 후경발전소내에도 사무실을 두어 動燃의 지도와 대외대응을 강화할 방침을 내놓았다.

富士電機精機

GE와 合併事業

일본의 富士電機는 지난 5월 22일 전액출자회사인 富士電機精機(三重縣 四日市, 土成弘-사장)와 美제너럴일렉트릭(GE)사와의 사이에 에어컨용 단상 팬모터에 대하여 중국, 동남아시아시장에서의 제조·판매에 관한 얼라이언스 계약을 체결, 합병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장차는 반반출자로 될 소유주회사 「富士電機精機香港有限公司」를 홍콩에 설립, 동사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해 나가게 된다. 당분간 富士電機精機의 中國 現地法人인 「大連富士馬達有限公司」를 소유주회사의 밑에 두고 6월 1일부터 공동경영한다. 이번 제휴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년내에 중국 및 동남아시아시장에서 4분의 1 이상의 세어를 확보할 생각이다.

홍콩의 신회사는 富士電機精機 90%, GE10%의 출자비율로 4월에 설립되었다. 1998년까지에 반반출자로 할 예정이다. 사장에는 富士電機精機의 土城弘-사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